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제45차 정기총회

전국 13만 경찰가족 복음화 총력

조용목 목사, 교회와 경찰이 협력하여 선하고 의로운 사회 조성 당부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제45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6일(일)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려 신임대표회장 김상윤 목사(나눔의교회)를 선임했다. 김 목사는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13만 경찰전교를 위해 4500여 명의 경목들과 함께 경찰가족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와 경찰중앙협의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기도회는 사무총장 박노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나라의 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오찬기도

회도 함께 드려져 △대통령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경찰청장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경찰전교와 교경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계속해서 경찰청장 정재민 총경의 성경봉독, 경찰학대의 특별연주,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엡 5:8-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민생과 치안유지를 위해 수고하는 경찰과 경찰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조 목사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정체성을 잃어 버리면 비극에 처하게 된다고 전제하고, 특히 우리나라

리의 정체성은 한말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결코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와 국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또 사람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게 되어 결국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교회와 경찰은 우리 국민들이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기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회와 경찰이 협력하여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교경협의회가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직전 대표회장)의 환영사, 이철성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인사말, 김상윤 신임대표회장의 인사말, 신철모 목사(전국경목총회 대표회장)의 격려사, 전계현 목사(예정합동 총회장)의 축사, 박노아 목사의 경과보고 및 광고 후 정진성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찬 후에는 대표회장 오정현 목사 주재로 정기총회가 열려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나눔의교회)를 선임했다.

김 목사는 인사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3만 경찰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하겠다고면서 4,500여 경목들과 한국교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자유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

제66차 총회 10회 임원회

교단 제66차 총회 10회 임원회가 지난 2월 27일(화) 오전 11시 은혜와찬양교회(담임 엄기설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위기에 처한 자유 대한민국호를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때 복음이 혼탁해 지는 때를 맞아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차흥식 목사의 기도, 재무 탁정신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탁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한한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역자, 자유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재무 탁정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총회장 김영인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령 후 총무보고에서 총무 엄기설 목사는 교단 업무보고 및 교계 업무보고로 정책위원회 모임, 2018년도 목사고시, 제45차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정기총회를 비롯 각종 업무사항들을 보고하고 교단 재무 탁정신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

자가입 청원, 교역자 복귀 청원, 교회전출임 청원, 교역자전출임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지은퇴 보고, 교역자소전 보고 등의 내용이 처리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지방회 임원 자격 연한을 일부 조정했으며,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과 필리핀지방회 정기지방회 개최 내용 등이 보고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본 받는 신학생 다짐

총회신학교·목회대학원 2018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

설교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총회신학교, 목회대학원 2018학년도 제1학기 입학식 및 개강예배가 지난 3월 5일(월) 오전 11시 총회본부 대성전에서 드려져 마지막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목대원 사무국장 윤기석 목사의 사

회로 시작하여 목대원 교수 최병진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요삼 1:11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것을 본 받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우선 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악한 것을 본 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 받는 신학생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학생들이 될 것"을 강조하고 신임

생들과 신학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 교수소개가 있었으며 목대원장 임종달 목사는 신임생들을 환영하며 비전 복음전파를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한 길만을 가는 교단의 신학교에 입학한 것을 축복하고 신학교 및 목대원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목대원 원우회장 박웅진 전도사의 헌금기도 후 교단 중경총회장 이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점심식사 후 총회신학교, 목대원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신학연구원 노재성 교수들 강사로 개신교와 천주교 구원론 비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사역들을 위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다.



프루도초장은
바람은
바람은
바람은

‘누가 사이비 기독교인인가?’

조용목 목사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벧후 1:20,21)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판단하면 옳을 수 있습니다.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있지만 중대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죽은 다음의 운명에까지 결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종교를 믿든 어떠한 대상을 신봉하든 어떤 교리를 믿든 믿지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습니다. “벧후인이라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사이비가 있습니다. 사이비란 겉으로는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인가 사이비 기독교인인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며 바로미 터입니다.

첫째,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자기 의견을 보려는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보려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를 수 없습니다.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이 많은 교단의 지도자더라도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단체에서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결의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바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교리나 의식을 기독교에 가미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혼합하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보태어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그가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실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둘째, 구원의 진리를 이중언어를 사용하면서 애매 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이비 기독교인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선거관리위원회 67차 총회 선거일정 확정

3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 임원 입후보자 등록 마감



교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금)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67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 일정 및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회의를 갖고 선거일정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잠3: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총회를 위해 헌신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것을 강조하고 위원들을 축복했다. 위원장 김인찬 목사 사회로 곧바로 이어진 회의는

시행규칙을 점검하고 부분적인 수정사항 및 불필요한 내용들을 수정, 삭제하기로 했으며 총회 일정에 대해 별첨 차에 따라 확정했다. 총회 선거관리공고는 헌법에 의해 목양신문에 공고하기로 했으며 입후보자는 3월 30일(금) 오후 5시까지 입후보자 관련 등록서류를 마감하고 4월 3일(화) 서류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선관위원 오일선 목사의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교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제24대 한기총 대표회장엔 엄기호 목사

엄기호 후보 145표, 김노아 후보 67표, 무효 6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지난 2월 27일(화) 오전 11시 제29회 속회 총회를 열고 제24대 대표회장엔 엄기호 목사를 선임했다.

한기총은 지난 1월 30일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법원의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정회한 후, 속회 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실시한 것이다.

속회 총회는 총회대의원 367명 중 214명 참석으로 개최했으며, 대표회장 직무대행 김창수 목사는 “여기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세상 법에 자주 호소하니 어려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며 “한기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 나와 다소 맞지 않다 해도 대다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인사했다.

개회 후 곧바로 대표회장 선거가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후보들은 대표회장 선거에



나서는 소견을 발표했다.

기호 1번 김노아 후보는 “세 번째 출마했다. 소속 교단 권위를 확실히 보호하고 선배들의 옛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당선 즉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이 추진될 경우 즉시 사표를 내겠다. 또 신전지를 퇴출하고 한국교회 진리 수호에 앞장서고, 저를 반대했던 분들도 확실히 품겠다”고 말했다.

기호 2번 엄기호 후보는 “4개월간 대표회장을 해 보니 뭔가 달라져야 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기에 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며 “유연비어와 모함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겠다. 하나 되지 않으면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총회대의원들의 투표에서 총 218표 중 엄기호 후보 145표, 김노아 후보 67표, 무효 6표로 엄기호 후보가 제24대 대표회장엔 선임됐다.

총회는 2018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기타 안건들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고 폐회했다.

보수교단총연, 총재취임 감사예배 드려

신임총재에 허영무 목사 추대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지난 2월 24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양평군 소재 성민교회 대성전에서 총재 허영무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박종철 목사(예장합동전통총무) 사회로 이상원 목사(한총연 서기)의 대표기도, 임석영 목사(예장합동전통 부총회장)의 성경봉독, 총재 취임패 전달, 꽃다발 증정, 박동호 목사(한총연 대표회장)의 고전 15:58 말씀을 본문으로 한 ‘건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허영무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수락하지만 총재 자리가 무겁



게 느껴진다. 하지만 맑은 바 직책을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예배는 계속해 하석 목사(한총연 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남성운 목사(한총연 상

임고문)의 축도로 마친 후 참석자들은 오찬 시간을 갖고 한총연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신임총재 허영무牧사는 한제 예장합동전통 총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3.1절 제99주년 기념 및 나라위한 기도회

독도영유권 등 일본사과 있을 때까지 대처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진복 목사)는 지난 2월 27일(화)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제99주년 3.1절 기념예배 및 나라위한 기도회를 드리고 1919년 3월 1일 일어난 평화적인 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총칼 앞에 죽음을 무릅쓰지 아니하고 생명을 조개처럼 버리면서까지 비폭력 무저항으로 대한민국민세를 외

친 위대한 민족정신의 만세운동과 독립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협의회는 이날 3.1절 결의문도 발표하고 “3.1운동은 을사늑약과 경술국치의 한일병탄으로 이 나라를 송두리째 삼켜버린 무자비한 침략자 일제를 향해 외친 위대한 독립선언이었음을 일본의 아베는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고, “일본 정부

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종군위안부에 대한 진술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3.1정신으로 무장해 끝까지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기념예배는 공동회장 김동권 목사 사회로 예성 증경총회장 조병창 목사의 기도, 고문 박종걸 장로의 성경봉독, 공동회장 김재송 목사의 신 7: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도 겸해 열린 3.1절 제99주년 기념예배는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3.1정신으로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 세목선한 대표회장 배태선 목사가, ‘한국교회의 개혁과 성장을 위해’ 기민형 회장 원종문 목사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원로목사회 회장 조석규 목사가, ‘국론이 하나 되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하여’ 공동부회장 김병문 목사가 기도를 각각 인도했다.



예성 부흥사회 제35회 정기총회 개최

총재 이상문 목사·대표회장 유광선 목사 선출

제35회 예성 부흥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신암교회(담임 유신 목사)에서 열렸다. 첫째 날 대표회장 김영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에서는 유광선 목사(상임회장)가 기도를 했으며, 윤기순 목사(총회장 직무대행)가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어 부총재 이상문 목사의 진행된 총회는 전국교회와 교단산하 학원, 예성 부흥사회와 회원교회들의 부흥과 성장, 나라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어 이기운 목사(총재)의 격려사와 이경준(교단총무), 유홍욱 목사(신임교회 원로)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윤구 목사(증경 총재)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성 부흥사회는 교단 본보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던 70년대 초 예성 교단의 보수



적 정통성과 긍지를 상실하지 않고, 교단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먼저 성령충만해야 한다는 총회 차원의 요구에 의해 태동하여 조직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성 교단의 영성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재 이상문 목사 △연수원장 김영일 목사 △대표회장 유광선 목사 △상임회장 윤맹석 목사 △사무총장 정성환 목사 △서기 전승환 목사 △부서기 최윤영 목사 △회계 김성은 목사

3.1절 제99주년 기념 연합예배 드려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 등 3개 단체 연합으로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이하 기개협)와 (사)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이하 세계연,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이하 개교협) 등 연합된 3개 단체는 지난 2월 26일(월)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3.1절 제99주년 기념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세계연 상임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세계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기도, 기개협 이사 임정태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중앙단의 찬양, 예장정통총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 연주, 세계연 총재 김권현 목사의 빌 3:17-4:1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권현 목사는 “우리 선조들이 1919년 3월 1일 나라도 말도 빼앗기고 자유도 인권도 권리도 모조리 몰수당하고 노예가 되어 지내다가 다시 나라를 찾고자 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킨 것이 31운동이다. 그러므로 31절을 잊을 수 없다.”며, “이날을 기억하여 우리는 미



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계속된 예배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예장합동부총총회 부총회장 서경숙 목사가,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해’ 예장개혁1총회 총회장 한형기 목사, ‘일본회개 추구와 우리땅 독도 지키기 위해’ 예장기도총회 증경총회장 김성환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된 예배는 예장개혁총회 총회장 강

희준 목사의 독립선언문 낭독, 세계연 상임 부총재 노종관 목사의 만세삼창에 이어 기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WCC에 속지 말고 동성애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크리스천들은 애국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제99주년 3.1절 연합기념예배는 개교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사)보수교단협, 3.1절 제99주년 기념예배

“구국 위한 선각자들의 신앙 본받고 계승해야!” 강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가 지난 3월 2일(금) 제99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기독교가 중심이 된 그 날의 구국 신앙을 본받고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40개 회원교단 총회장 및 총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예배실에서 드린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신한철 목사의 사회와 합동정통총회 백장준 목사의 대표기도, 개혁합동 총회장 임준제 목사의 ‘3.1운동의

영성과 교훈’이란 제목의 설교, 안정윤 선교사의 독립선언문 낭독,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사무실 이전보고, 개혁총회장 조경근 목사의 격려 및 축사, 협의회 서기 조조복 목사의 만세삼창, 하나님의교회 성령총회장 김승현 목사의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회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와 함께 드린 이날 예배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통성으로 국가 안정과 통일을 위해(합동보수

총무 김영호 목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보수연합 총회장 이경희 목사), 협의회 발전을 위해(제지총회 총무 김성림 목사) 각 각 기도했다.

한편 이날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인사의 말씀을 통해 “보수교단협의회 40년 역사 속에 협의회가 예배실을 꾸미고 첫 예배로 3.1절 예배를 드리게 돼 영광과 함께 감격스럽다”면서 “오늘의 3.1절 예배와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는 뜻깊은 날이며 짧지 않은 협의회의 역사에 기록될 날”이라고 밝혔다.

한홍교 목사는 또 “어려운 협의회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사무실도 이전하게 하시고 임원진들의 협력으로 공사도 한 적은 비용으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한국교회 후계자 양성위한 사이버신학교와 상립신학교를 개설하고 1천만 성도를 대상으로 성경 필사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장연합장신, 제53회 졸업식

송기호 박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줄 것’ 당부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장신) 총회(총회장 송기호 목사) 신하 총회신학교 및 대학원 제53회 졸업식을 지난 2월 24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소재 동신학교 강당에서 갖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일꾼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은 교무처장 최명복 목사 사회로 부총회장 이순애 목사의 기도, 교수임선자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회장 이승재 목사의 고전 15:9-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을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졸업식에 대한 졸업장 수여에서 훈사에 나선 학장 송기호 박사는 “목회자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 그리스도



의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고 훈시하고,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해 말씀으로 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졸업식은 계속해 부총회장 김진중 목사의 권면, 교수 오영순 박사의 축사, 교무처장 최명복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총회장·학장 송기호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서울한영대학교·대학원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등 학위수여식 가져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은 지난 2월 21일(수)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2017학년도 학위수여예배를 드렸다.

학생처장 손수호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권형재 교수의 기도, 학생

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명예총장 한영훈 목사가 ‘성공적인 삶’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했으며 오동록 교수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이어 학생처장 손수호 박사가 학사 보고를 하고 대학원장과 총장 직무대행이대

학원 박사학위, 대학원 석사학위,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박사학위 등을 수여했다.

또 총회장 김시훈 목사가 총회장상(홍시원), 심경옥 이사장이 법민이사장상(이영광), 명예총장 한영훈 박사가 명예총장상(이예지)을, 총장직무대행 김천수 박사가 총장상(박정진)을, 의장 강진보 박사가 대학평의원회의장상(김채민)을, 총동문회장 이경수 목사가 총동문회장상(김미숙)을, 요류동지점장 최화영 목사가 국민은행장상(박정화)을, 총장직무대행 김천수 박사가 한영인상(양창원 박종관)과 우상상(윤수지 등 8명), 봉사상(김형준 등 7명)을 각각 학부 졸업자를 대상으로 수여했다.



다윗을 도운 용사들처럼 담대히 나가자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2월 8일(목) 오전 11시 울산은혜와진리교회(담임 최성진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홍무 조경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황연선 목사(순복음복있는교회)의 대표기도, 윤혜영 목사(순복음주찬미교회)의 대상 12:1-7 말씀을 본분으로 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옥경숙 목사(물안동산교회)의 헌금기도,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사회로 월례회를 진행한 후 울산은혜와진리

교회(담임 최성진 목사)에서 대접하는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인권조례안폐지 지역별로 확산 기대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조찬기도회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지난 2월 27일(화) 오전 7시 동천교회(담임 박귀환 목사) 5층 드림홀에서 2018년도 제2회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대표회장 진동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충청기독교인들과 회원들이 단합하여 지난달 충남인권조례안을 폐지시키게 된 것을 치하하고, 더욱 힘을 모아 아산시인권조례안을 폐지시키자고 격려했다.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힘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원진 목사의 대표기도, 고분 김소은 감독의 '삼일운동의 현주'라



는 제목의 설교, 고분 강상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 감독은 설교를 통해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하자'라며 '삼일정신은 1)애국 충정신 2)국민단결심 3)기독교정신 4)민족복음화 정신이다'라고 전했다.

2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임용서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인권위원장 장현원

목사가 '아산시 복음화를 위하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가 '아산시 기독교연합회를 위하여'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3부 보고회는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의 사회로 자문위원 이명수 국회의원(국정활동)에 관하여 보고하였고, 연합회장 온재전 목사가 기독교연합회에 관하여, 회장 박귀환 목사가 아산시사랑스민연합에 관하여, 위원장 장현원 목사가 바른인권위원회에 관하여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2월 27일(화) 오전 11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장기로 1580번길 32-3에 위치한 한알의

밀알교회(담임 신홍섭 목사)에서 한알의밀알교회 이전예배 및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교회들과 회원 목회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기 성기찬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권점식 목사의 대표기도, 회장 이성석 목사의 왕하 2:1-11 말씀을 본분으로 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사, 재무 윤득주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최응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회장 이성석 목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교단과 지방회의 보고사항들을 전달하고 3월 정기지방회에 대해 안내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 대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청 : ① 센터(안양성전 행복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②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③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i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강도영 목사, 웨스트민스터신대원 박사학위 취득

서울중부지방회

서울중부지방회 강도영 목사(은천교회)는 지난 2월 8일(목), 교단과 복음주의 보수 정통신학의 상호발전 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 및 졸업식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설교학)을 전공한 강도영 목사는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방법(A study on Christ-centered preaching methods in Hebrews)'이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도영 목사는 그의 논문에서 오늘날 한 국회의 상황, 즉 양적 성장의 쇠퇴, 도덕적·윤리적 타락과 신뢰성 저하, 그리고 대



내외적 이단들에 대한 무지와 무별비 상태 등에 대한 상황을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인의 정체성 상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성경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인들에게 기독교 정체성 회복을 강조하는 히브리서를 설교학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하나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2018년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 통감, 나라와 교회를 위한 시대적 책임의식과 사명감 충만

2018년도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지난 2월 27일(화) 저녁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대성전에서 각 성전 교회학교 교사와 부서 담당 교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 경제와 심각한 국가안보의 위기 속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교사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어린이와 학생들을 성경적인 참된 신앙과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잘 가르치고 돌볼 것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교회학교 행사운영국장 김요한 목사의 사회로 안양성전 중등부 부장

김기춘 장로의 기도, 신임 정교사 임명과 근속교사 표창, 북한선교회 확산한 교육연구팀장의 강연,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 순서로 진행되었다.

확진한 팀장은 현재의 우리 한반도 상황과 관련, 북한은 착실히 적화통일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반면 우리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없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상실해가며 북한의 전략에 끌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이 주창하는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역사와 체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의 해설과 개념 정리를 통해 교사들로 하여금 바른 이해와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다.

조용목 목사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서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목심한 신앙과 함께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교회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었다.

한편 특강 전에 2018년도 신임 정교사 임명식과 교사 근속상 시상식이 기쁨 충만, 감사충만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원주성전 중등부 강경구 교사 등 83명의 신임 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어서 교사로 35년째 헌신한 과천성전 초등부 박애령 교사를 비롯 200명의 교사에게 근속상을 수여하고 치하했다.



■ 생명의 말씀 ■



최형택 목사

· 전라지방회 중경회장
· 평양은혜와진리교회 담임

비 내리는 날에 빗소리를 들으면 가끔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처량하게 버려진 가구들을 보면 한 때는 주인의 사랑과 관심 독자들을 받았던 가구였을텐데 이젠 쓸모없게 되어 버려졌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한 때는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지만 또 어느 순간 외롭고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몰라 줄 때 외로워집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화려한 뒤에 슬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 뒹뒹치며 살아

가는 사람들이 우리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중에 대부분 교회를 다녔던 신자였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유독 아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좋지 않았습니

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려 70-80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뇌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50-60%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뇌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뇌 기능을 상실하는 병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뇌 안에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매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나 알츠하이

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뿐 아니라 모든 질병은 외로움과 친밀합니다.

한번뿐인 우리 인생을 외롭게 살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신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감동으로 살아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도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14:17)

바로 내 안에 계시니다. 이 엄청난고 신비로운 사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또 재발견 하여 감동의 도가니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이보다 더한 신비로움이 더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안에 계시다는 사실, 거들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지만 너희는 알지니.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진히 가르치시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사실인 것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배신을 당해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에, 아무도 나를 격려, 사랑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고 경험한다면 매순간마다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고 어떤 분위기에 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 합니다. 이렇게 잘 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 힘이 되어주세요.”

버림받고 외로울 때도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보듬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 않겠는가?

둘째는 퇴행적역사관(退行的歷史觀)의 투영이다.

31절 기념사를 작성하려면 먼저 90년 전 <31독립선언서>를 면면히 살펴보았어야 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자수호조약이후, 시시 때대로 군에 맺은 약속을 먹여 버렸다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대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아서,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인들처럼 대하여, 한갓 정복자의 패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고 하여, 일본의 속좁음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국군은 일본에게 빼앗겼으나 정신과 의기는 제국의 침략주의를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는 대범함과 낙담함의 독립선언서인데, 어찌 99년이 지난 오늘에 대령의 기념사는 선조들의 독립선언서 정신에 못미치는 역사 퇴행적 사고로, 국민과 세계 앞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이는 국민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 5면에서 계속

동 정

기독교화선교회 이사장에 장현서



기독교화선교회(대표회장 김문훈 목사)는 신임 이사장에 장현서 장로(전주흥산교회)를 선임했다. 장현서 장로는 전주

흥산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베트남사랑선교 이사장, 북방선교회 이사장, 전남도민일보 명예회장, 전북기독교신문 이사장, 해비타트 상임이사, 아세아선교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경북기총 대표회장 선출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김경호 목사(경주주사랑교회)가 선출됐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월 22일 경주남부교회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목사를 추대했다.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이장희 목사는 “지역복음화와 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나사렛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는 지난 2월 13일(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18년 일경험사업 기업탐방프로그램’ 위탁기관으로 선정(사업금액 25,800만원)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본교 재학생과 교요생, 취업준비생 등 진로 및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기업탐방을 진행한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총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는 지난 2월 26일(월) 오후 서울 송파구 중대로 송파가나교회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생명윤리 세미나, 생명대행진 참여, 낙태반대운동연합 캠페인 후원 및 참여 등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확정했다. 신임 이사에는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길찬 새길교회 목사가 위촉됐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총회임원 및 지방회임원)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이라 한다.(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교단의 부흥발전과, 오직 성경적인 교단운영으로 국내 외 선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적하고 외롭고 진실한 일꾼을 선출함에 있다.
- 총회를 섬길 외롭고 신실한 일꾼을 선출할 때에 세속적인 수단,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 총회 임원들이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 시켜 교단 발전에 헌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후보 자격

- 총회임원 자격기준은 헌법 제84조에 의하고 지방회의 임원은 헌법 제76조에 의한다.
- 임원 후보 등록을 하려는 자는 헌법 제73조에 의거, 총회와 지방회의 상회비 연체가 없어야 한다.

제4조 총회임원 후보 등록 및 운영사항

- 총회임원 후보자의 등록 서류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회본부에 제출하고, 총회본부의 접수담

당자는 제출자의 인화하여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봉인한다. 단, 제출한 서류 및 등록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총회 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는 등록마감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개봉하여 서류심사 후 후보 등록 가·부를 후보자 당사자와 총회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후보자는 지방회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임원 10명 이상의 서명 추천이 있어야 한다.
- 등록한 후보자의 기본정보는 선관위가 총회 홈페이지, 총회신문, 우편으로만 총회임원에게 공지한다.
- 선관위시행규칙을 위반한 후보자 및 총회 임원은 즉시 선관위가 소환 조사할 수 있으며 범법자로 판단이 되면 즉시 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재판위원회는 신속 처리하여 선관위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선관위는 총회 임원회에 통지한다.
- 총회임원 후보자가 선관위 시행규칙 위반 시에는 선관위는 임원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는 해당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위원회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결원된 임원은 정재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미등록 발생 시 교단헌법 제84조 3항 4호에 의거, 정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서류는 선관위에 제출한다.
- 등록비는 총회장 임후보자는 1천만원, 부총회장 임후보자는 500만원, 총무 임후보자는 300만원, 그 외 임원 임후보자는 각 200만원씩을 총회 재정부에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임원 임후보자 선거운동의 규제사항

- 총회임원 상회 등록 제공 및 요구행위와 식사절대행위
-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유언비어 유포행위
- 관공모임을 주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총회 시 숙식, 오락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인터넷, 유언물을 통한 선거운동
- 기타 선거운동.
- 상기의 규제사항은 선관위 공고일부터 정기총회 후 10일까지 적용한다.

제6조 총회임원 임후보자의 제출서류: 각 1부씩

- 임후보 신청서(총회양식)
- 안수 증명서 (목사는 총회에서, 장로는 지방회에서 발행)
-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지방회 발행)
- 재직증명서(목사는 총회, 장로는 소속교회)
- 명함판 사진(6개월 내 촬영) 3매
- 임후보 등록비 영수증 사본
- 지방회임원회 추천서
- 총회임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 이력서 및 교단 내 이력 소개서
- 임후보 소견서(A4용지 1장 분량)
- 가족관계증명서

제7조 부칙

시행규칙은 총회임원회를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2011. 3. 7. 제정
2012. 3. 5. 일부 개정
2012. 4. 16. 일부 개정
2013. 3. 5. 교단명칭 변경
2015. 3. 3. 일부 개정

1. 등록마감 : 2018. 3. 30(금) 17:00까지
2. 등록장소 : 총회본부 (접수담당자 : 사무국장 목사 윤기석)
3. 등록방법 : 직접 또는 대리인이 등록
4. 문 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 (010-3033-0073)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정의섭 목사 (010-8145-445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 인 찬 서기 목사 정 의 섭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무죄 판결’에 경악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하여 경악과 개탄을 금지 못하며,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창윤 판사는 군대 내에서 장교끼리 동성간 성행위, 즉 항문성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를 ‘합의하여 동성간 성행위를 기했다’는 이유만으로 2월 22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내에서 단순히 합의하여 동성간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유로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의 평생 파트너의 숫자는 500명을 넘는다. 국내 유명 연예인은 중·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 파트너 숫자가 300명을 넘었다고 고백했다. 동성애는 단순한 성적 취향이 아니라 성중독이다. 선임병이나 장교가 동성애자이면, 성중독에 따라 끊임없이 성 파트너를 찾게 되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 특성상 합의적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

기가 어렵다.

또 일반적인 이성애와는 달리 남성 동성애는 단순히 한두 명의 성적 파트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되지 않게 된다면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특히 성적 욕구가 강력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군대에서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성간 성행위가 허용된다면, 군대는 동성간 성행위를 배우고 전파하며,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푸는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법재판소는 2016년 판결을 포함한 3년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이며,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에 관한 군형법은 군대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할 때 합헌이라고 판결(한법 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이러한 한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

산의 주요 경로이다. 동성애와 군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내 남성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군대 내에서 동성애는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에이즈 감염도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대가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면, 어느 부모나 청년들이 군 복무 의무를 받아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으며, 특히 핵문제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2심 재판을 통하여 바른 판결을 나오기를 기대한다.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향후 올바른 판결을 위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18. 2. 23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기출협 제44회 정기총회, 방주석 신임회장 선출

한국기독교출판협회(기출협) 제44회 정기총회 및 제34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2월 27일(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일반, 목회자료, 신학 등 5개 분야 국내·국외 부문 최우수상 1편과 대상 1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우수작 출판사에게는 상패와 꽃다발이 증정됐다.

기출협 측은 기존 분야별 국내·외 최우수 1편과 우수 2편씩 시상하던 방식을 올해부터 변경, 대상과 분야별 국내·외 최우수 1편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1차 심사 통과작 전체를 우수 도서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우수도서 지정을 늘려 기독교출판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함이다.

대상은 생명의말씀사 <성경 문화배경 사전>이 선정됐다. <성경 문화배경 사전>은 1,744쪽 분량에 4부 44장의 주제로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풍습, 관습, 제도 등 문화적 배경을 소개함으로써, 성경에 등



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생생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작은 신앙일반 부문 국내 브니엘 <성경 100배 즐기기(신/구약편)>, 국외 토기장이 <오스 기

니스의 저항>, 목회자료 부문 국내 쿠파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국외 IVP <IVP 성경난제주석>, 신학 부문 국내 CLC <3년내 에드워즈의 성화론>, 국외 홍성사 <에스터서로 고찰하는 하나님과 정치> 등이다.

‘사랑의 왕진버스’ 올해 첫 이동 무료진료서비스 실시

의료선교NGO인 샘복지재단(박세목 대표)의 ‘사랑의 왕진버스’는 열린열방선교교회(정진학 담임목사)와 함께 3월 4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올해 첫 이동 무료진료서비스를 실시했다.

사랑의 왕진버스는 의료소외계층에게 찾아가 진료 및 투약서비스 지원을 통해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동진료서비스이다.

이번 진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소재한 열린

열방선교교회 내 쉼터에서 4일 가정의학과, 신부인과, 치과, 한의과, 약제과 전문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함께 진료 및 투약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은 약 10만 명으로 대부분 3D업종에서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으로 피로 누적과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건강검진 등의 기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언어소통 및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질

병이 악화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열린열방선교교회 정진학 담임목사는 “어디가 아픈지 모를 채 잡고 일하다 늦게 병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서 이번 이동진료서비스를 요청하게 됐다”면서 “이번 이동진료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종교인 과세 공개강좌 선착순 접수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현일)은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에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2월 2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와 공공정책과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전분으로 연구하는 장현일 박사는 종교인과세정책 시행에 있어 실제로 세마나를 통해 일선 교회의 다양한 질문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소득세법 제 12조 18항을 보면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결정되어 종교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은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안에는 의결기구의 범위에 대해 간소하게만 기재되어 있다. 교단별로 사용하는 용어와 조직 구조 체계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후에 충돌되는 갈등들이 예상된다.

둘째, 기획재정부는 남세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해 2017년 8월부터 전담인력 395명을 운용했다고 발표했다. 2017.11.28 보도자료) 하지만 정확한 담당자 배치 및 업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지된 바로는 각 관할 세무서 내부에 있는 기존 인원 중 한 명의 조사관에게 종교인 과세 전담 인원을 배치했다고 각 관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에 대한 공지 내용과 신청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과반수에 해당된다(본연구소 설문조사)



셋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를 다른 각도로 보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신흥종교를 내세워 개인이 설립하고 자진 종교인 소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에도 종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구조가 실현된다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까지도 기획재정부에서는 폭넓게 통찰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

넷째, 한국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는 170개국 2만 7436명이다. (2017.12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하지만 종교인 소득 과세 범위에 이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고 논의된 바가 없다. 종교단체에서 선교사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면 위험 지역에 있는 선교사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선교사의 안전 및 적절한 방안에 대해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기부금 영수증 등 여러 측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안들을 의견서에 담았다.

한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종교인과세 전문연구를 위한 공공조세정책연구소(소장 최요한)는 우리 교회 정관 만들기(가제)를 출간 예정 중에 있다.

문의 02-6925-0256, 홈페이지 주소 <http://ptpl.modoo.at>

☞ 논평 4면에서 이어짐

또 다른 것도 문제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기해지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여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라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고, 응서하기 어려운 참담한 일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간의 합의가, 피해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부족함 점이 있어도, 이제는 그 부끄럽고 원통한 비극은 당시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 각자의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시 우리의 누이, 고모, 이모를 지켜 드리지 못한 그 죄송함과 비통함을 국민 각자의 마음에 품고, 그 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그 어르신들의 희생이 다른 많은 국민들의 희생을 대신 하신 것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분들의 시간들을 우리의 비용으로 극진한 대접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드림이 마땅하다.

이 일에 있어서, 밖으로는 의연하고, 안으로는 국민 각자 마음 속에 칼처럼 아픈 고통으로 삼아야지, 어느 때까지 남의 탓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는 퇴행적 역사관으로 피해 받으신 어르신들의 아픔을 이루만저 드리기 보다는 상처와 아픔을 다시 깨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계 2류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는 비전제에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통일 즉, 남한과 북한(대한민국, 조선인민민주주의)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민족역사의 당위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통일지상주의(統一至上主義)가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합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 말은 자칫하면, 매우 무모하고 위험이 따르는 일이 되지 않나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게다가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양보하고서라도, 인민민주주의 체제에 관계없다는 것인가?

99년이 되는 3.1절 기념식에서 행한 대통령의 기념사는, 역사왜곡과 퇴행적 역사관, 그리고 국가비전을 제시함에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주장으로 삼하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교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증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 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3월 20일(화)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지방회

순복음세움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김양인 목사
교단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조병희 목사
부산지방회장
기정순복음교회



정기영 목사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순복음세움교회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
부 산 지 방 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777(010-4841-4245)

국내 결혼중개업 전국지사 모집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사편 165-6)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불신은
“매칭 즉 만나게 해주는 일”에 있습니다.
결혼 114는 “매칭문제”를 완전 해결하였습니다.

매칭은 본사 100% 전담, 지사는 영업 전담

1. 4차 산업혁명의 정보 공유 시스템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셀프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 스스로 희망하는 상대방을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하여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2. 회원 중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시간상 여건이 안 되는 회원이 본사에 매칭을 요청하면 본사 근무 “매칭 전문 매니저의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종교별, 지역별, 나이별로 “결혼미팅 파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연간 기본적으로 3회를 제공하며 (최대 8회까지) 한 번 미팅에서 최대 40명의 상대방(8회 참석 320명)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신용과 정직을 다하는 기업 www.결혼114.com은 다릅니다. 12년간의 경험과 많은 투자로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결혼 중개업체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사명 ♡

1. 오직 말씀으로 2. 구제와 선교 3.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후 생활

■ 지사장 조건

1. 청년 창업자, 노후생활을 위한 창업자 환영
2. 세례교인 이상으로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분
3. 온유한 성품과 열정이 있으신 분



■ 결혼114의 서비스 비교분석자료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35만원	3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결혼 114의 약속 ♡

본사가 홍보하여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1인당 5만원씩 적립하여 매월 전체 지사 1/N의 일로 분배하여 지사 계약기간 중에 기본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 신사업의 기회(추가수입)

1. 해외 여행업 2. 국제결혼중개업 3. 국제결혼신문

■ 협력업체 모집

현재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 계신 업체로서 부담 비용일체 없이 상담 후 업무협약서 체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여자만(汝自灣) 해변, 산청 등 산책로 걸으며 심신 단련
스포츠선교위원회 건기동우회 2월 모임



회장
홍현철 목사

교단 스포츠선교위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 산하 건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2월 22일(목)~23일(금) 양일간 광양은혜와진리교회(담임 최형택 목사)에서 2018년 새해 첫 모임을 갖고 심신을 단련하며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정영진 목사의 기도, 김영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18:22-27 말씀을

본문으로 '티끌과 같은 나라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굳건한 믿음과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교단과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미래정책연구소 김성욱 소장의 시국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국가의 안보와 교회의 구원의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기에 각기 목양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음의 각오를 다졌다.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형택 목사 인도로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 2부 행사로 광양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여자만(汝自灣) 인근의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남해바다의 청정한 바다 공기를 가슴에 깊이 담으며 회원들과 소중한 사랑 나눔의 시간을 함께 했다.

이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가족호텔로 옮겨 인근의 돌레코스를 걸으며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 지로 향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역자 되기를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3월 6일(화) 오후 7시 순복음행복교회(장영기 목사)에서 제33회 목회자기도회를 갖고 혼란한 나라의 안정과 땅끝까지의 복음전파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도회에 앞서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와 부회장 최정식 목사의 기도예배에 이어, 지방회장 장영기 목사의 설교로 1부 경건예배를 마치고 2부 기도회를 가졌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광주지방회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총회와 지방회를 비롯하여 목회자와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기도회는 정기 지방회 관계로 첫째 주에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벌써 33회를 맞게 되었다.

이번 기도회는 순복음행복교회에서 맛있는 추이탕을 대접하여 이미 5시에 모여 맛있는



게 먹고 넉넉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말씀을 선포한 지방회장 장영기 목사의 말씀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운 해로워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지방회와 지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교단 총회장 김영민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순복음행복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간식과 따뜻한 대추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담을 나누었다.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귀한 사명 감당

예하성부산신학교

예하성부산신학교(학장 한명점 목사)는 지난 3월 5일(월) 오후 7시 신학교 소재지인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새학기를 더욱 사명감으로 성령충만함으로 무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교무처장 조은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학장 한명점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한 목사는 눅 4:42-44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전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



들을 축복했다.

이어 직전학장 고영권 목사, 교무처장 박용호 목사, 교무과장 정환무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부 순서로 고신대 황인철 교수의 '스마

트시대의 교회홍보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이 이어져 스마트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홍보할 것인가에 관하여 귀한 비전을 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모든 순서는 학장 한명점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마쳤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 2월 19일(월) 오전 11시 순복음행복교회(담임 김병호 목사)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병호 목사의 기도, 서기 임형순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회장 김홍관 목사(주내순복음교회)의 설교, 회계 최갑자 목사의 헌금기도, 그리고 설교자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목사는 딤후 2:11-15, 3:4-5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의 소명을 자정하며 잠시 방황했지만 지금까지 고비 고비 때마다 도우시고 강권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었기에 목회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



지고, 이 큰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감시하며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회원들을 격려했고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지방회장 최은규 목

사의 사회로 정기 월례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3월에 있을 전체 회원 아유회에 대해 논의한 후, 증경회장 임용재 목사의 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2018 타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1. 일 시 : 2018. 4.12(목), 19(목) 2회(시간은 세부일정 참조)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3. 대 상 :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한 교역자로서 연수교육 미필자
4. 등록금 : 50만원(입금계좌: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등록마감 : 2018. 4. 6(금) 17:00
6. 연수과목 및 세부일정

4월 12일(목)	4월 19일(목)
11:00~11:50 교단신조 I	11:00~11:50 교단역사
12:00~12:50 점심식사	12:00~12:50 점심식사
13:00~13:50 교단신조 II	13:00~13:50 교단헌법
14:00~14:50 성경론	14:00~14:50 총회행정
15:00~16:00 구원론	15:00~16:00 시험

● 문의 : 02)2675-5181-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양인 / 총무 목사 엄기설

“동성애 합법화·차별금지법, 교회가 막아야”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성황리 마쳐

제1회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 대중적 공감 이끌어 방안 마련 나서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1회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가 열렸다.

지난 2월 26~27일까지 서빙고 은누리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아카데미는 10명의 전문 강사진이 포진돼 차별금지법의 본질과 법이 통과될 경우 야기될 문제와 그에 따른 교회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 간 성행위는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기존 선량한 혼인법집서를 붕괴하는 것으로, 도덕붕괴 및 혼인풍속 붕괴로 심각한 폐해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반양론이 팽배해 맞서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의 삭제를 강조했다. 그는 “‘성적지향’이 포함된 범조항 문구는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지향’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해 나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정확한 전문지식들을 집중 학습하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복음적 진리를 설교 등을 통해 선포하고 실행함으로써 성도들을 일깨우는 운동을 확산시켜나가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동성애 이슈에 대해 기독교계의 의견을 제시할

때,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정화 교수(한양대 경영대학)는 “기독교계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 교단 차원에서 조사·연구기능을 갖추고 올바른 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2018 정책 세미나 개최

‘동성애 폐해 예방과 시민운동’ 주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2018 정책 세미나 및 제5차 정기총회’가 최근 유림회관전통문화실에서 열렸다.

강대봉 대표(전국유림총연합회)의 개회사, 이진호 공동대표(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의 축사, 이계성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격려사,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총신대 겸임교수)의 발제, 황덕하 공동대표(중독예방시민연대)와 안희환 목사(기독교싱크탱크 상임대표)의 토론, 이병진 목사(전북성시회운동본부 대표)의 폐회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동성애 폐해 예방과 시민운동’을 주제로 발제한 김규호牧사는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닌 치유가 가능한 성중독의 일종이며, 무서운 행위중독으로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며 “심각한 동성애에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예방”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성범죄의 대부분은 성 중독에 의한 범죄”라며 “국가·사회는 각종 법령제정과 정책입안을 통해 성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동성애 폐해도 같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하고, 각급 학교에서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성 중독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예방하는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중독예방지침’, ‘동성애조장금지법’ 등이 제정·폐하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민인권조례’, ‘학생인권조



례’를 개정해야 할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성 중독예방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며, 시민단체를 통한 적극 연대해 의사, 약사, 상담사 등 전문가집단이 나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며 각국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유엔과도 싸워야 할 것과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가 먼저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국제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동성애의 폐해는 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결핵·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가정파괴, 인성파괴, 우울증, 자살 등 일반인들이 상상

하는 그 이상임에도 현재, 한국사회는 동성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동성애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하고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평생 동성애자로 살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광고수익과 시청률에 매몰된 매스미디어들은 무분별하게 동성애 코드를 삽입하고 동성애를 미화 조장하고 있어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로부터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가하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소수자 인권으로 말한다면 동성애자들보다 탈동성애자들이 더 소수자들에게 우리사회는 탈동성애 인권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설동욱 목사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는 나에게는 큰 축복”

주변의 시선과 압력적인 강요에 억압받으며 남달리 어려운 성장기를 거치게 되는 목회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어진 사명에 눈 뜨게 하는 제30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가 지난 2월 19~21일 오산성은동산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와 설동욱 목사(예정교회), 박태남 목사(벤엘교회), 문강원 목사(원전교회), 천관웅 목사(누사운동교회), 임우현 목사(징검다리선교회 대표), 다니엘김 선교사(IGM 대표), 강은도 목사(광교푸른교회), 하귀선 선교사(세계터미널선교회) 등이 말씀을 전하며 큰 은혜를 나눴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자녀는 “주님을 한 번 더 찾고 주님께 간구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세미나여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한 자녀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우리 남매 모두 잘 커서 셋 다 아르바이트 하고 학교도 잘 다니니까 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사랑합니다. 하나뿐이신 어머니 아버지”라고 입을 열었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 진행한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는 “첫날 어색해 하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고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면서 “이러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큰 축복”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은혜 받은 이후에 자녀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고 아프지 말고 힘들어 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부모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목회자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다”고 말했다.



JMS 2세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

월간 현대종교

이단사이비종교의 흥망성쇠는 후계구도의 구축과 2세대들의 정착에 달려있다. JMS 2세들이 자연스랄게 JMS신도가 되고 있지만, 당연하게 믿고 따르던 JMS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억압된 관리와 체계로 인해 참기 힘든 고통으로 이어졌고, 2세들의 가출과 학업 중단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JMS 2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친구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웠다. A씨의 엄마는 JMS가 아니던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게 했고, 그런 친구들을 사귀면 엄마가 직접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놀지 말라고 했었다.

A씨는 밖에 나갈 때 입을만한 옷도 없었다고 고백했다. 교회 갈 때는 상하의 흰색을 입어야 하는데 전부 그런 옷뿐이었다. 검은색 계열의 옷은 절대 입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요일별로 입을 속옷까지 정해져 있었다. JMS 2세인 A씨의 친구는 아이돌 가수를 좋아했다. 하지만 방에 붙은 아이돌 가수 포스터를 확인한 부모에게 심



한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아이돌 가수도 마름대로 좋아할 수 없었다.

A씨의 집에는 정명석의 영이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소파를 마련해 정명석의 영이 있는 자리라며 매일 치우고 기도했다. 식사를 할 때면 먹으면서 “선생님(정명석) 밥이 맛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넘어져도 “어떡해요. 선생님 저 넘어졌어요”라고 말해야 했다. 정명석이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교육받았다.

10대 2세들이 JMS 탈퇴를 고민하는 이유는 교리가 이상하거나 정명석이 성폭행범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다. 그에 앞서 심한 간섭과 구속, 세상과 단절된 JMS의 삶이 10대인 2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통일교와 마찬가지로 JMS 2세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현대종교」 3월호에서 볼 수 있다.

홈페이지: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조선 선교사들의 독립운동 최초공개

KBS 3월1일 '이방인과 3.1운동' 특집다큐 방송



지난 3월 1일,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들의 독립운동사가 새롭게 조명되었다.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KBS1TV에서는 '이방인과 3.1운동' 특집다큐 2부작이 연이어 방송되었다.

(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 제작후원한 특집다큐는 '1919년, 그날을 기록하다'와 '항일의 길에서 우리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시청자들을 찾았다. 19세기 말 문화개방 직후 조선에는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찾아왔다. 한일 병합조약으로 일제의 지배하에 압축기를 보내던 그들은 조선의 불행한 자신의 불행으로 인식하고 항일독립운동에 숨은 조력자로 역할을 감당했다.

3.1독립만세운동의 배경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고, 그들이 남긴 각종 기록과 자료에서도 3.1운동과 일제 저항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특집다큐는 위대한 평화와 인권, 자유 독립의 운동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던 3.1운동을 둘러싸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 이방인'들의 기록과 노력을 발굴하고 추적했다. 국경을 넘어 국내에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선독립을 염원했던 저항의 기록들을 전했다.

1부에서 공개된 이 자료들은 미국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와 펜실베이니아 미국장로교역사박물관, 캐나다 선교재단 등으로부터의 편지, 일기, 외신을 비롯해 미공개 회귀 자료들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조선의 이방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1919년 서울 파고다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만세운동의 목격자가 되면서 중립을 깨뜨렸고, 그들이 본국으로 보낸 수많은 보고서와 편지를 통해 일제의 만행과 조선의 상황은 전 세계에 알려졌다.

한국 군목회 제99주년 3.1 기념예배

군 복음화를 위해 전력기로 다짐

한국군목회가 주최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예비역 군목회가 후원한 제99주년 3.1절 기념예배가 지난 3월 1일(목)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예배실에서 드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군목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군 복음화를 위해 전력기로 다짐했다.

3.1절 기념예배는 기감 예비역군목회 회장 정의선 목사의 인도로 이사 박정현 목사의 기도, 이사 송민섭 목사의 '3.1절과 예비역'이란 제목의 설교, 기감 전국원목회 합주단의 특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이사 이정문 목사가 조국과 국가안보, 군선교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사무총장 박창환 목사의 광고, 이사 장 김기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지난 2월 6일(화) 교단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 소속 순복음행복한교회(담임 김병호 목사)에서 가족세트전도 학장 박영수 목사를 초청한 경기지방회 주관 가족세트전도컨퍼런스 12회 중 7차 성회를 통하여 양주 지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직접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현장을 체험한 시간을 가졌다. 양주 지역은 특히 불교 무속 신앙이 문화제로 곳곳에 자리한 곳으로 영적 전경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점이 많기도 하다.

이번 가족세트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전할 수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방언으로 30분 이상 기도하여 성령충만으로 무장하고, 세트전도 시스템대로 영접기도 훈련받고 전도에 나간다면, 전도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박영수 목사의 확신에 찬 말씀을 통해 전도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영하 16도가 되는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령충만으로 추위 따져 녹이는 전도실습 현장의 모습을 통하여 확신 할 수 있었다.

악한 영에 의해 입을 꼭 다물고 한 마디도 안하던 보살 두 사람이 미용실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보살과 원장, 손님 등 세 사람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제압당하며 입이 열리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영접기도를 한 후에는 목사님이 묻는 대로 개인정보를 말하고 미용실 들어가는 출입문 입구에 행복한교회 교패를 붙이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전도물품이 전혀 없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로 하는 능력전도이기 때문이다.

요즘 여러 가지 전도법을 사용하며 물품을 전하며 전도를 나기더라도 이통과 전화번호를 받기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하고 신생아 드를 작성하는데 사람들은 한 번의 의심이나 주저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주변 상가 음식점에서 부동산, 미용실, 건강원에 서 약 한 시간 전도했는데 11명이 영접기도를 받고 가족들까지 신생을 가르쳐주고 7개 교패를 붙이고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철저히 약속을 받았다.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안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령충만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를 통하여 가족세트전도법을 12번 참석하여 완벽히 익히고 많은 훈련을 통해 더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되리라 다짐한다.

순복음행복한교회/김민정 전도사
순복음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병호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자성로 214번길 15-10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기도회 모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제로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는 지난 2월 22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한경직 목사 기념의 집에서 정기기도회 모임을 가졌다.

이 기도회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 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란 공동기도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상임회장 송영채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유은옥 목사의 기도, 총괄본부장 김승희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재 안영(성악가)의 특송,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요 1:1~4 말씀을 본 본문으로 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목사는 설교를 통해 '주의 종들은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져야 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광미 목사의 봉헌기도,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인사 및 광고, 부총재 최연복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계속된 2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최은유 목사의 인도로 '이 민족 모두에게 은혜 주심을 위하여' 상임회장 하석 목사가, '세계 선교 민족 되게 하심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소서' 상임회장 김정택 목사가, '행장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 되게 하심과 앞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하여' 상임회장 마진영 목사가, '한국 교회운동본부를 위하여' 사무국장 김준성 전도사가 간절히 기도했다.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는 하나님에 막힌 답을 기도로 부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 모인 단체이다.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추구”

성결대 제1회 산학협력의 날 개최

성결대학교(총장 윤동철) 산학협력단이 2월 27일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아람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산학협력의 날'을 개최했다.

성결대는 대학의 비전인 '미래교육도시 SKUniverCity' 실현을 위해 SKUniverCity형 산학협력력을 통한 대학과 사회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산학협력의 날을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국회의원, 이필운 안양시장을 비롯해 성결대 협력기업 임직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은 성결대 산학협력단 소개와 2017년도 주요 사업성과 발표, 산학협력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서가 있었으며, 김형영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부 중소기업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또한 성결대 산학협력에 많은 기여를 한 경동물류, 로젠, 메가네스트릭스, 에이비씨로지스, 위정업시스, 태, 재성운수, ㈜프라이맥스, 하니종합물류, 한국품질재단, 화물맨 등 10개 기업에 대한 공로패 증정식도 있었다. 성결대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그동안 SKUniverCity형 산학협력 고도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를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해 왔다"며 "사업체 공동연구를 비롯해 산학공동 기술개발, 기술이전, 애로기술지도,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결대 윤동철 총장은 "그동안 축적된 산학협력 성과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력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 해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력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장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춘계세미나 및 야유회

| 일 시 | 2018년 4월 2일(월)~4월 4일(수) 아침식사까지

| 장 소 | 녹동순복음교회(백영자 목사 시무)

전남 고흥군 녹동 신항8길 17-5 교회 : 010-3638-0120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국

| 문 의 |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 계좌번호 |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모시는글

여교역자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순종하며 걸어오는

우리 모두에게 아랫녘의 꽃 소식에 잠시

우리에게 더 멀리가기 위한 힘이 필요함을 느껴봅니다.

2018년도 총회산하 여교역자국 회원님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야유회를 겸한 세미나를 남쪽 고흥 녹동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교역자국 임원 올림 -

2018년 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06:00		새벽예배	아침식사 후 출발
07:00		아침식사	
08:00			
09:00		고흥관람 (산책로포함)	
10:00			
11:00			
12:00		점심식사	
13:00			
14:00			
15:00	등록, 숙소배정	갯벌체험	
16:00	개회예배		부흥회
17:00	설교:정부용 목사(고문)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	세미나		
20:00	강사:임종달 목사		
21:00			
22:00	기도회		
23:00			
24:00			

1. 지부장들은 참석 여부 및 인원파악을 하여 3월 11일까지 알려 주십시오.
(숙소예약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2.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춘계모임은 야유회 위주로 진행됩니다. 먼 거리 여행이라,
바닷물 상황에 따라, 부득불 2박 3일이 되었습니다.
※1박 2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4월 3일 점심식사 후 터미널로 모셔다 드립니다.
3. 경기,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지방회별로 출발하셔도 되며, 버스로 함께
가실 분들은 서울 대림변영교회로 오전 9시까지 모여 주시면 됩니다.
(※단 버스 이용시 왕복 2만원 회비를 받습니다)



정채원장 조종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김양인 목사
목양제일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변영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차장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기획실장 조영란 목사
일산탄영교회



경조부장 김순자 목사
회복의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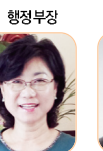
행사부장 최영희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복자부장 이경자 목사A
순복음경동교회



선교부장 조은주 목사
순복음삼동교회



행정부장 김순자 목사
회복의순복음교회



섭외부장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사회부장 김종애 목사
군암순복음교회



찬양부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예배부장 최정희 목사
성령교회



봉사부장 이명순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정보부장 안신자 목사
대화순복음교회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부 지부장
서경교회



서울중앙지부 지부장
예수왕교회



경기지방회 지부장
온누리순복음교회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경기남지방회 지부장
월문산교회



인천시흥지방회 지부장
밀음교회



경기북지방회 지부장
중성한생명교회



인천시흥지방회 지부장
밀음교회



일산지방회 지부장
순복음평강교회



김포지방회 지부장
임마누엘교회



대전지방회 지부장
대장산기도원



충남지방회 지부장
솔로몬순복음교회



청주지방회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통영순복음교회 지부장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지부장
이순애 목사



순복음원광교회 지부장
조은혜 목사



순복음길교회 지부장
황희숙 목사



성령달교회 지부장
임성애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지부장
김명자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지부장
정복례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지부장
심연숙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목양시사

3·1 독립만세운동과 기독교의 역할

올해가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9주년이 된다. 3·1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 공원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므로,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게 된다.

그 여파로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만주지역에서는 항일무장 독립투쟁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비롯되었고, 국산품 애용과 근검절약운동이 벌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3·1독립만세운동은 그 자체로는 뜻하는 바를 당장 이루지는 못했으나, 후에 설립된 상해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정’을 밝히므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고, 독립에 대한 분명한 뜻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독립 의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에서는 북경대학생들을 중심으로 5·4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에서는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비폭력/무저항 운동이 일어났으며, 필리핀/세인트/아일랜드/터키 등의 독립운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3·1독립만세운동을 결행함에 우리 기독교의 역할은 대단하였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 3·1독립만세운동을 전파한 48명 가운데 24인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311개 지역 가운데, 기독교가 주동이 된 지역이 78개소,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작한 지역이 42개 지역이다. 그리고 보면, 기독교의 참여율은 25~38%에 달한다.

또 그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포/투옥된

사람이 9,458명인데, 이 중에 기독교인은 2,087명으로 22%를 차지한다. 당시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20만 명 정도였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에서 1.3~1.5%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운동량은, 인구 비율에 따르면 10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왜 기독교인들의 참여율이 높았는가? 기독교 신앙이 정의/자유/평화에 기반한 것이며, 자주/평등/해방을 목표로 한 민족주의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즉 신앙과 민족주의가 잘 결합되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 장로교의 경우를 보면, 1907년 독노회를 구성하고, 1912년 총회를 조직하므로 교회를 통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18년 일제가 조선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한 압력조직을 만들려 하므로, 3·1독립만세운동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당시 기독교는 소수이며, 신흥종교이면서도, 3·1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 독립의 의지와 정신을 함양하였고, 이후에 해방과 건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3·1독립만세운동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 나갈 것인가?

첫째는 국민의 주권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나라를 빼앗기고도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열등민족’으로 보았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예측되는 ‘식민지’적 발상은 거부해야 한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중국몽’이라는 말이 나왔다. 어쩌하여 우리가 중국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하는가?

둘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3·1독립만세운동은 당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 후 독립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국가의 정체성이며, 지금까지의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는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당시 “독립선언서”를 보면, 우리 민족의 독립이 동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압제국이었던 일본을 향해서도 ‘공존’과 ‘호혜’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독립 후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지금도 한반도를 핵으로 무장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시 독립을 위해서는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이 협력하였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산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부터 불거져 나오는 것은 ‘분리주의’ ‘남남 갈등’ ‘지역 갈등’ ‘분권주의’ ‘분파주의’가 난무하고 있다. 99년 전, 독립만세운동을 펼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을 것은, ‘화합’과 ‘단결’이 이뤄져야 한다.

99년 전, 기독교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3·1독립만세운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자,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한, 무력과 속임수로 인하여 국권을 잃었지만 정신만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당시 기독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한때도 국가가 혼란하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 3·1독립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은 물론 다시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

-한국교회연구원

사설

3.1절 구국기도회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태극기 행진을 시작한 날이다. 이 3.1 운동은 세계에서조차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다.

3.1운동은 민족대표에 의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일반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많은 인원과 오랜 기간 한반도 전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지속되었다. 자발적인 만세운동에는 학교와 교회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그 학교 중 상당수가 기독교계 미션스쿨이었다. 결국 3.1운동은 한국 기독교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기독교는 한국에서 뿌리를 내렸다. 서양선교사들은 일제에 비교적 자유로웠고, 그들의 보호와 비호하에 만세운동은 지속될 수 있었다. 한국기독교는 독립운동을 통해 우리 겨레와 하나가 되었다.

3.1운동을 기념해 한국기독교는 매년 구국기도회를 연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 구국기도회는 특별했다.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 위기에 북한의 핵위협에 무기력한 현 정부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제에 맞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북한 공산주의의 핏박에 항거하며 성장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 한국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이번 구국기도회는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그 결과는 최대인파가 모인 구국집회였다.

지난 3월 6일 남북한이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정상회담과 남북 대화·교류의 확대, 북한 비핵화와 미·북 대화, 한·미 연합훈련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전 세계가 우려하는 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망상에 젖어 국가안보를 그릇되게 하는 일은 않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런 담보 없는 정상회담은 북핵협상의 실패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만약 세계 우방들의 우려에도 이 같은 무모한 선택을 하면 한미동맹 균열과 남북 갈등을 자초하게 될 뿐이다.

총회신학교·목대원·사이버신학연구원 개강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총회신학교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필수 코스인 대학원 과정인 목회대학원이 새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2018학년도 첫 수업을 시작했다.

특히 총회목회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신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들을 이끌어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되어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사역지에서 귀한 목양의 사역을 감당해 오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신학과정으로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으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 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확정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의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사이버신학연구원 3년 6학기 과정의 새학기 과정도 시작되었다.

총회 신학 신학교육기관을 총회신학원 신학에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사이버신학연구원으로 운영하며 전국 각 지역별로 부산, 광주, 전주, 청주, 충남 천안 등 6개 지역에서 지방신학교 과정과 병행하여 신학교육을 실시, 미래 교단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게 된다.

“생명나눔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지난 2월 25일(주일), 사순절을 맞아 전국의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가 드려졌다. 전국 6곳의 교회에서 426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세계교회(담임목

사 유성암)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 박진탁 목사를 주일 1부와 2부 예배의 설교자로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박 목사는 ‘이름다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 크리스천이 먼저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세계교회의 유성암 목사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이 시간, 생명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 은혜의 말씀을 따라 신세계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사랑의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장기기증 서약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말씀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깨달은 신세계교회의 175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생명나눔을 위한 교회들의 중보에 힘입어 이날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문장교회(담임목사 이형준)에서도 사순절을 맞아 주일 1, 2부 예배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남지부 지부장인 김종만 목사를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체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체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3.1절 구국기도회 및 국가회복 범국민대회’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개정 반대, 한미동맹 강화 외쳐

3.1절 99돌을 맞아 3.1절 구국기도회 및 국가회복 범국민대회가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먼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등 기독교계 대표 연합기관들이 주관한 구국기도회로 1부 예배를 드리고, 국가 위기 앞에 광화문 일대에 모여 국가회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 국민이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뒤 한국교회 1200만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1부 기도회는 전광훈 목사의 사회로 엄신형 목사를 비롯해, 이태희 목사, 홍재철 목사, 이익주 목사, 박만수 목사, 지덕 목사 등 보수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피수군이 될 것을 목청껏 외쳤다.

전광훈 목사는 “민족 개화와 독립운동, 건국, 새마을 운동, 6.25, 민주화 등에 기독교가 앞장섰다. 3.1운동 당시 그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

다”면서, “예수한국, 복음동일로 나가자”고 독려했다. 특히 전 목사는 “요나가 배 밑에 지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잡자는 자여’라고 책망해 깨웠듯이 한국 교회도 깨어나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깨어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국민대회는 3.1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은 3.1절 노래 제창, 조갑제 대표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문수 지사와 김진 위원, 김진태 의원, 고영일 변호사, 김은구 청년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고, 서정갑 대표와 허평환 사령관이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다.

또 3.1절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택기 회장의 선창에 이은 만세 삼창으로 마쳤다.

이어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범국민대회를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평화통일의 헛된 꿈을 심어주며 국민을 속이는 종북좌파 정권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중구 코리어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없애기 위한 국제사회의 군사·비군사적 수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1절 구국기도회 및 국가회복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날 광화문 일대는 광화문 정문 앞을 시작으로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 대한문 앞 남대문로에 이르는 전 구간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애국 국민들이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구호를 외쳤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회주의로의 헌법개정 반대, 한미동맹 강화 등의 구호를 외쳤다.

